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3,

열왕기상 1:28-52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오늘 밤 시트에 있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완전한 맹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실지도 모른다는 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야가 자신의 시설을 짓고 있던 엔로겔은 기드론 계곡 아래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여기서 코드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윗 성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도 여기 있느니라. 결국 그곳에 성전이 건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을 두로피 골짜기 라 불렀고, 그 다음에는 지옥인 힌놈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쓰레기장이었던 곳입니다. 엔로겔은 제가 말했듯이 다윗의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이곳에 있었습니다. 기혼샘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도시 아래에 터널을 팠고(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곳에 못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실로암 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성벽 내부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 있을 때, 거기 벽에 그것을 놓기 위해 일종의 조강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주변에 포위군이 있을 때 그것은 여전히 다소 위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그 봄에는 문자 그대로 시간당 수만 갤런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En-Rogel이 동일한 수중 대수층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양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개의 스프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경쟁적인 제사장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론의 아들 중 하나요, 하나는 아들이었더라. 그에게는 원래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이상한 불을 바쳤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아자르와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엘르아자르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장막은 예루살렘과 세겜 중간쯤 실로에 있고 제사장은 이다말의 아들 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쟁하는 두 명의 성직자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의 손자 중 하나가 도망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아비아달이었다. 거기에는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이 전체 투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흰개미와 더불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의 개인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펠렛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마도 이들은 그가 블레셋 용병이었을 때 그에게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에게 개인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단에 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 주는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뿌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봉사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좋은 추측은 희생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으면 제단, 즉 제단 뿔에 붙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단의 뿔들이다. 좋아요, 그게 배경이에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글썄요, 저는 뿔에 대해 한 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뿔이 일종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뿔에 붙은 피는 예수님께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알다시피... 좋아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좋은.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은,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창세기의 네 강 중 하나가 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과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대답은 '나는 모른다'입니다. 나는 Fiddler on the Roof의 Tevye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싶나요? 내가 말해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암시적입니다. 근데 뭐? 아무도 모릅니다.

관찰은. 그래서 밧세바가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아도니아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Nathan이 그녀를 따라 들어옵니다. 다윗이 나단과 이야기하는 동안 밧세바가 파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는 밧세바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왕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전체 맹세의 일부입니다.

내가 살아 있음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를 두고 네게 맹세한 것을 오늘 반드시 지키리라.

솔로몬아, 네 아들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자기를 대신하여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데이빗은 흐릿한 두뇌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시절을 어느 정도 기억합니다. 5년, 6년, 10년 전에 우리가 큰 축하 행사를 가졌을 때 저는 솔로몬이 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제가 모은 모든 자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절.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을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서약에 더해 서약도 합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이 내용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도니야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왕국의 주요 권력 중개자들과 함께 도시에서 남쪽으로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일을 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실제로 약속을 받았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노인의 뇌는 꽤 흐릿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밋세바와 나단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서약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보라고 요청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 하느님, 저는 당신께 드린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오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사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하나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렇다면 왜 서약을 지켜야 합니까? 내 말은, 우리는 약속을 하고,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변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나는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나는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기 무슨 일 이죠? 만약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면, 그분이 유일한 권위이시라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개념. 예, 여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점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전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단지 크게 쓰여진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약속을 지키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적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신의 놀라운 점은, 아니, 그분은 크게 쓰여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는 사실이다. 민수기 30장에는 모세가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이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어떤 약속으로 자기 몸을 지키기로 서약하였으면 그 말을 어기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좋아요, 신의 명령이군요.

이것을 보관해야 합니다. 왜?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 금지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제자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여호와의 추종자라고 부르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까? 아, 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네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으므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젊은 아버지였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준 한 남자를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이가 한 번 더 그런 일을 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아이에게 원인의 법칙이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면,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몇 번이고 봅니다. 자기야, 다시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네 손을 때릴 거야.

오, 이제 자기야, 또 해냈구나.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친구, 그러지 말자.

글쎄요, 그만 두는 게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세상에 진리가 있음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탈진실 세대라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를 객관적인 현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매우 매료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그분이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이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우주에 참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진리의 개념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여 이르되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장군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저 아래 엔로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브나야는 부사령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제사장, 선지자, 권력자, 말하자면 시민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왕? 예언자? 성직자? 권위의 전체 초점, 희생의 종교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권위, 국가 권력의 시민적 권위. 모든 능력은 이전의 모든 대표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 안에 있으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이르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 노새에 타게 하라 그를 기혼으로 데려가라. 아도니아는 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은 더 큰 샘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과 물이 무슨 상관이냐?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질서는 삶의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질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분출되는 물 속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였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지 말라고 그토록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또 다른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면 그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인가? 아니요.

그러나 그 큰 샘에서 왕관을 쓰시는 이 행위에서 그분은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책이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아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것은 왕과 예수님뿐 아니라 절기가 진행되는 방식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다. 모든 남자가 성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오순절, 6월 초순,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추수의 시작입니다.

장막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장막절은 9월 15일쯤이었습니다. 음, 아니, 실제로는 9월 30일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인의 여행에 있어서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달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해는 다시 순서대로 돌아가는 데 13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나가서 판잣집에서 사는 때입니다. 초막절은 판자집절보다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40년 동안 우리는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이 기억하는 것에 비추어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약 후기 초막절에 대한 일부 설명을 보면, 그들은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었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위대한 날에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물통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이 미친 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멍청이. 그는 미쳤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축제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쳤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인들을 우리 목에 짓밟을 것입니다. 그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살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종종 기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편에서 있었을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말하는 혁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물 줄까? 누구세요? 하나님?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이제 35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그와 함께 올라갈 것이요 그는 와서 내 보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노릇할 것이요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이제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다와 다른 지파들은 결코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잠깐 기다려요.

유다는 온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가?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것의 일부는 지리적입니다. 세계사의 많은 부분이 단지 지리학의 확장일 뿐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갈멜 산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이스라엘 계곡이 있어서 그것을 깨뜨린 다음 계속됩니다. 여기서 하부 갈릴리와 상부 갈릴리 사이에 또 다른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그 두 지점 사이를 바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능선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마일. 그렇다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여기 이 지역에 의해 통합된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부족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유다가 있고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이번 주에 유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겠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하 2장, 4장, 8장, 9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겠느냐? 이제 그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 헤브론이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레이첼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곳이 내 조국이에요. 할까?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부하들, 곧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브론 성읍들에 살았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나이르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 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길르앗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아래에 있는 아셀 사람들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벤자민. 그리고 벤자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 보셋은 나머지 모든 것의 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매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솔로몬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주목하십시오. 글썄요, 그것도... Trouble에서 나온 거예요. 압살롬은 어디에서 왕관을 썼습니까?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헤브론! 헤브론! 유다는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잠깐만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왕은 길갈로 건너갔습니다. 여기 건너편이에요.

요르단으로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유다 군대 전체를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이 가는 길을 호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불평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왕을 흠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도 그 시류에 편승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왕을 도적질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가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왕이 우리 동족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것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까요?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특별한 맛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있다고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에 대한 권리가 당신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등등. 당신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십니다. 알았어, 솔로몬.

나 자신의 개인적인 자력으로, 이 반대 집단을 조심스럽게 대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선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솔로몬과도 함께 하여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욱 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왕좌를 내 왕좌보다 더 크게 만드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제 문제는 다윗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 28-34.

그건 그렇고, 시편 18편에서처럼 반복됩니다. 그것들은 동일합니다. 당신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눈여겨보시어 그들을 멸시하시나이다.

데이빗이에요. 오 주님, 당신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나는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벽이라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참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분은 보호를 받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방패이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신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견고한 반석이십니까?

자,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31절).

그리고 그는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33절). 이제 NIV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질식했습니다.

여기 NIV 받은 사람 있나요? 3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 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나에게 휴식을 주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나의 길도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와.

우와. 자,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 완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양면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양면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갖게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왕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마십시오. 왜 안 돼?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28절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겸손. 겸손. 나는 누가 왕인지 압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주의 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29절.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등불, 나의 빛.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걷는 법, 가는 법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빛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30절은 무엇입니까? 힘. 너희는 나의 힘이니라 - 31절.

하나님은 양면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이지 않으십니다. 그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비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 다른 사람의 승리를 기뻐할 수 있는 곳. 나는 보통 바이런 경을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한 말은 아주 아주 사실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애도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응.

응. 3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와 그레 사람 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인도하였더라.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글썄요, 이것이 길 아래 반 마일 떨어진 아도니아 일행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작가의 숨씨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아, 조나단이 온다. 음, 조나단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전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48은 이에 대한 David의 반응입니다. 그의 왕좌가 당신의 왕좌보다 더 크길 바랍니다.

오늘 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질투의 조각이 아닙니다. 손상된 자존심의 조각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에게 후계자를 주었다. 응. 다윗과 사울의 죽음의 차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굉장한. 나에게 후계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선합니다.

나는 그렇게 죽고 싶다. 아도니아에게 온 손님들, 49절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온 손님들은 다 놀라서 흩어지는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게 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솔로몬은 그보다 더 똑똑해요. 그가 스스로 합당함을 보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누군가가 왕좌에 오르면 일반적입니다. 특히 왕좌에 대한 그들의 지위에 의문이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방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고 솔로몬은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아도니아는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을 꽤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연구의 마지막 질문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솔로몬입니다.

그 나라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약속하셨느니라. 이제 당신의 큰 형이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노인은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뭘 하세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구약에서 기다림과 신뢰는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사야 40장, 31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뭔가 해야 해요.

아도니야를 막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게는 요압도 있고 아비 니야도 있습니다. 와, 여기서 뭘 할 건데? 아니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좌에 오르면 여기에 형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왕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스스로 취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을 잘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냥 그를 죽여라.

그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제가 다시 말했듯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솔로몬의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을 가장 좋은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만큼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솔로몬이 사울을 대했던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이 중 일부를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David에게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이야기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손에 넘겨져 옷을 벗고 뒤에 쫓그려 앉았고 그의 부하들이 다윗아, 다윗아, 이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가서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 나는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기름부음받은 왕을 제거하시기 전에 나는 그 기름부음받은 왕을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얽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는 그의 법정에서 다섯 번째 기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불만스러운 형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장군과 대제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아도니야가 총을 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정에는 다섯 번째 기둥이 굽아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가 끝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악으로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습니다. 최악의 것을 취하여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성입니다. 글썄, 우리는 지금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쥬.

응, 뭘 성취할 거야?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있나요? 응, 응. 그러나 저기, 저기 있습니다. 평정심으로 능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입니다.

상대를 죽일 기회를 먼저 잡을 필요가 없는 솔로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일터에 있어.

예? 데이빗이 가족에게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만약 데이비드가 가족에게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와 더불어 죄를 지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제 생각에는 의심할 바 없이 성경은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나는 단지 데이비드 자신이 무질서하게 선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아마도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셨고, 그것을 보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 응, 응. 많은 평론가들은 이 부분, 특히 1장과 2장을 밧세바와 나단이 뭔가를 해내는 것과 같은 궁정 음모의 예로 볼 것입니다.

나는 연대기에 비추어 볼 때나 아도니아가 자신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실내 변기? 그렇다면 2025년 차기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신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합당한 종류의 정부를 갖게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 응, 응.

우리는 200년 동안 이러한 질서 있는 민주주의가 표준이라고 가정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일어난 가장 이상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는 2장입니다. 우리는 전체 장을 할 것입니다.